

“관객들 눈물 흘리도록 춤 감정 표현해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부감독
키릴 자레스키
10월 ‘돈키호테’ 전막공연 준비
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서 활동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1976년 창단해 고전 발레와 창작 발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광주 시민과 만나왔다.

올 초 박경숙 예술감독이 취임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광주시립발레단은 보다 다채로운 공연과 무용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새로운 외국인 예술부감독을 초청했다.

최근 취임한 키릴 자레스키(47·사진) 광주시립발레단 예술부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키릴 부감독은 “지난 7월 7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박경숙 예술감독이 ‘함께 해보자’라고 제의해 합류하게 됐다”며 “광주시립발레단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키릴 부감독은 러시아 극적으로 불소이 발레단의 부속 학교로도 잘 알려진 모스크바 국립 안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이후 불소이 발레단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다.

5년 전 공연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키릴 부감독은 광주 방문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발레는 언어를 떠나 전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발레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언어와 국적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한국행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의 수준 높은 실력도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이유다. 키릴 부감독은 사전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단원들의 공연 모습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단원들의 우수한 실력, 특히 젊은 발레

리나들의 테크닉에 놀랐다고 했다.

예술부감독이라는 자리가 예술감독을 도와 발레단은 이끄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키릴 부감독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수업)에 큰 열정을 보이고 있다.

키릴 부감독은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은 일(발레)에 관해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게 눈에 보일 정도다. 프로정신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테크닉면에서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아주 쉽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평가를 했다. “외적인 것 이외에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용수들을 연습실에서 가까이 보면 잘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멀리서 무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그것을 더 끌어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발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열바퀴를 뛰고 도는 게 목표가 아니죠. 관객들이 무용수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정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올 10월 ‘돈키호테’ 전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 독일인 안무가를 섭외해 안무를 구성했을 정도로 시립발레단이 그 어느때보다 정성을 쏟고 있는 작품이다. 키릴 부감독은 이에 맞춰 클래스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첫 전막 ‘돈키호테’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광주에 와서 보니 대극장이 공사 중이라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준 것 같아 아쉽지만, 무용수들과 모든 시립발레단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막 공연은 무용수들에게 무대에 서는 자신감과, 큰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많은 전막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릴 부감독은 “커리어와 실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립발레단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돈키호테’ 전막 공연은 ‘돈키호테’만의 화려함, 유쾌함 그리고 드라마틱한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수’

아름다운 소박함 ‘순수’

임희정 개인전, 18~30일 나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단아한 고졸미(古拙美)를 만나다.’ 서양화가 임희정 작가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소박하고 간결하다. 근작들에서는 그 단정함과 단아함이 눈에 띈다.

임희정 작가 개인전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나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Sensitive-순수(innocen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광주 미노갤러리 전시 후 연이어 마련됐다.

전시작들은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제작한 것들로 개성있는 추상적 매력을 보여준다. 한복의 색상, 오방색, 철교놀이 등을 모티브 삼았고 마치 한복의 옷고름을 교차한 듯한 형태의 디자인이 주조를 이룬다.

이번 전시작에서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색채다. 다채로운 색감은 어떻게 짙을 이루느냐에 따라 화면에 독창성을 부여한다. 넓게 칠한 바탕색에 따라 옷고름 모티프는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겹쳐진 띠 속의 색감의 변화는 또 다른 감성을 전한다.

임 작가는 “지난해 작품이 자유분방하고 온화한 색채 테라피였다면 이번 전시작은 단순과 절제를 가미해 조형성을 강조한 색채 테라피”라며 “점, 선, 면, 형태, 색감, 질감 등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임 작가는 남부 현대미술제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조형 21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부터 클래식까지 ‘비긴 어게인’

10월까지 ‘충장 22’서 공연

미디어 아트와 무용,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미디어 융복합 공연이 열린다.

광주 충장로에 자리한 복합문화 공간 ‘충장 22’에서 진행되는 ‘비긴 어게인’이다. 지난 8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미디어 아트와 현대 무용, 국악, 클래식 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비긴 어게인’은 오는 10월까지 모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차례 행사를 진행한다.

‘비긴 어게인’은 ‘충장 22’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행사다. 집계된 충장으로 상권을 살린다는 의미도 담아 마련한 행사로 시민 참여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한다.

입주 작가인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원이 충감독을 맡아 매회 미디어 작품, 홀로그램, 레이저 쇼를 진행하며 항상 함께 작업하는 전위예술가 펑크파파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다른 입주작가인 융복합 공연단체 유니버스 남궁윤 대표는 다양한 무용 연출을 통해 무용수들과 함께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보인다.

16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과 현대무



용가 김지공의 무대가 펼쳐지며 23일에는 입주작가로 입체 작품과 회화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순임 작가의 페인팅 퍼포먼스와 박세진의 발레 공연이 어우러진다. 이어 30일에는 역시 입주작가인 종이 인형작가 엄정애가 참여하는 인형퍼레이드와 이승아의 창작한국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에는 아쟁(유세운) 연주와 현대무용(김지공·정의현·김우빈) 공연이, 15일에는 창작한국무용(이승아)과 현대무용(조현도)이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깃가에 맴도는 모음곡 선율 ‘춤곡의 향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기악으로 선보이는 춤곡의 향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이하 광주여성필) 제 62회 정기연주회 ‘스위트’(Suite)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여러 개의 춤곡을 한꺼번에 묶은 모음곡을 선보인다. 특히 유럽에서 관현악 모음곡으로 다양하게 발전돼 오며 남겨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소개한다.

연주곡의 시작은 홀스트 ‘초록의 시냇가 모음곡’

가 장식하며 이어 시벨리우스 ‘연인 모음곡’을 연주한다. 또 ‘아리아’, ‘왈츠’, ‘상송’ 등으로 구성된 루터 ‘플루트, 하프시코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옛 모음곡’ 연주에는 베이스 플룻앙상블 음악감독 플루티스트 박지혜가 함께하며 마지막 곡으로 닐센 ‘현악 모음곡’을 들려준다. 지휘는 북포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정현이 맡는다.

광주여성필 다음 공연은 ‘사계동행 피아노 협주곡의 밤’으로 오는 12월 11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



박지혜



정현

서 열린다.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에서 출발한 광주여성필은 1999년 5월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5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25-511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통합의학 치유와 힐링을 담다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2

2022. 9. 30.(금)-10. 4.(화) 5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 장흥군 Jangheung County | 주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